

“힐링 명소’ 전남서 겨울 스테이크이션 즐기세요”

전남도, 여수·완도 등 추천 ‘풍광·미식’ 즐길거리 풍성 ‘여행에미치다’ 관광지 홍보 “새해 겨울바다 보며 재충전”

전남도가 최근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는 ‘스테이크이션(Stay+vacation)’이 유행함에 따라 새해 겨울바다를 감상하면서 재충전할 스테이크이션 여행지로 여수, 완도, 진도, 해남을 추천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조성된 럭셔리호텔과 리조

트가 많아 스테이크이션의 최적지로 꼽힌다. 오션뷰 객실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며 다도해 풍광을 만끽할 수 있고 여수 해상케이블카, 크루즈, 낭만포차, 돌산대교 등 야경 명소를 둘러보면서 여수 겨울 바다의 낭만도 흠뻑 느낄 수 있다. 갯김치, 서대회무침, 계장백반 등 여수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보는 미식여행도 매력이다.

완도는 국내에서 대표적 해양 치유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신지명사십리해변에 위치한 해양치유센터에서 바닷물을 이용한 수중노르딕 워킹, 공기 거품 마사지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체험하며 육체

의 피로를 날려 보낼 수 있다. 해변 근처에 오션뷰 풀빌라, 리조트, 한옥스테이 등 다양한 숙소가 조성돼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완도수목원, 장보고유적지를 둘러보고 완도 특산물 전복 요리를 맛보며 완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진도는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진도대교와 가계해변 인근에 조성된 리조트, 펜션 등 숙소에서 조용한 힐링 스테이크이션을 즐길 수 있다. 낙조 경관 명소 세방낙조 전망대, 명량대첩기념관, 윤림산방, 진돗개 테마파크 등에서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

하고 바닷장어요리, 진도 해산물 한정식과 전통주 흥주 등을 맛보며 눈과 입이 호강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남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비교적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계절 여행하기 좋다. 다도해와 두륜산, 달마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명소가 많다.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땅끝마을, 천년고찰 미황사 등 자연과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한옥 호텔이나 감성적인 펜션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해남 고구마빵, 닭코스요리, 삼치회 등 지역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1월에 선정된 4개 지역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만끽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소와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전남도의 겨울바다를 즐기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국내 최대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미치다’ 채널을 통해 매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yeomi.trave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체계 구축

북구·광산구 시범사업 선정 가구당 50만원 30가구 지원

광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1일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북구와 광산구 등 2곳이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학대 조기지원 체계 사업은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단했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하게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에 가구당 50만원 총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 지원과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양육상황 점검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동구 노인일자리 발대식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이 21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지역 유통 화장품·의약품 모두 ‘안전’

인체 세정용·치약제 등 79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 화장품과 의약품 품질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지정 품목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류(폼클렌저·바디클렌저 등) 59건, 의약품 중 치약제 20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 화장품은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니켈, 수은 등 중금속 6개 항목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정된 허용한도 기준 이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성상시험, pH, 유효 성분 함량 등 각 제품의 품목허가증이나 품목신고증에 명시된 기준, 시험 방법에서 설정된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도 식품의약품과의 연간계획에 따라 전남지역 유통 화장품,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하고 있다. 올해는 화장품, 의약품 80여 건을 연 2~4회 검사할 예정이다.

양호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연구원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시행,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지역 겨울철 농한기 고로쇠수액 채취

9개 시군서 160만6000 ℓ

전남도는 지난 15일 광양 백운산을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 채취를 위해서는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 채취는 밤 최저 기온 영하 2도 이하,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일 때와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를 보일 때 가장 활발해진다.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기후변화로 지난해보다 5일 정도 일찍 시작됐으며 광양, 구례, 장성, 담양 등 9개 시군 10만 1000그루에서 160만6000 ℓ 채취가 예상된다.

고로쇠는 ‘뼈에 이로운 물(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됐다는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미네랄,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면역 증진·고혈압 개선 등 효과가 있다.’

고로쇠 판매처는 △순천 농협서면지점 (061-752-5938) △광양 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법인(061-761-9944) △담양 산심영농조합법인(061-383-5600) △구례 고로쇠영농조합(061-781-4522) △장성 남창고로쇠영농조합법인(061-393-9896)으로 연락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고로쇠 임가를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제철 맞은 고로쇠 수액을 진지, 부모님 건강 선물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설 명절 ‘시민 생활안전 현장점검’

고광완 부시장, 취약계층 살펴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등 격려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취약계층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민 생활안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21일 서구청신건강복지센터와 들랑날랑센터, 쪽빛상담소를 찾아 취약계층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살폈다.

고 부시장은 동구 계림동 일대 쪽방촌 생활인들을 위한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와 쪽빛상담소를 찾아 배식 봉사 후 이용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와 쪽빛상담소는 마을 돌봄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 돌봄’을 구축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은 곳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는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구도심인 대인동·계림동 일대 여인숙과 모텔 쪽방촌에 마련된 쪽방촌 사랑방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공간인 이곳에서는 건강이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식사·빨래·샤워·카페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50여명에 달한다.

쪽빛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취업 연계 교육 등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쪽방촌 생활인들의 지역사회 재정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고 부시장은 앞서 쌍촌동 서구청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을 집중 상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 ‘설 명절 시민생활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민생활 안전대책 △비상진료 예방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3대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를 추진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우수건축자산 1호 ‘전일빌딩245’ 등록

전남대 학군단본부 등 4곳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높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 245가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21일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 전일빌딩 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원래 이름인 전일빌딩에 탄흔 245개를 더해 전일빌딩245로 이름이 정해졌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하며 시민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는 독특

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 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기술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등 일부 규정(건폐율, 조경 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